

폭언·위협·성희롱... '악성민원' 시달리는 공무원

광주시·구청 작년 폭언 등 1931건
담당공무원 신상 공개 '좌표찍기'
여직원 상대 성희롱·폭행 잇따라
羨시장 "보호 위한 실질방안 마련"

지난 3월6일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직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월29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그때부터 이 공무원은 불특정 다수의 민원에 매일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들 역시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

성민원 건수는 1931건으로 폭언·폭설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협·협박도 460건이었고 성희롱은 82건에 달했다.

특히 일선 구청의 악성민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언·욕설의 경우 시 4건, 구 1362건 △위협·협박은 시 2건, 구 439건 △성희롱은 구 82건 △폭행·폭력은 구 8건 △기타 구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폭언·욕설'은 민원내용과 무관한 화풀이성 막말,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해 욕설, 말꼬리 잡고 인신 공격성 반말, 본질 민원은 없어지고 트집 민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협·협박'은 민원인 요구사항 불수용시 감수실에 신고하거나 통화녹음을 언론사에 배포한다는 협박이나 '취발유를 가지고 방문하겠다', '직원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이었다. '성희롱'은 여직원을 상대로 성관련 비속어 남발, 성희롱,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협박 등이다.

'폭행·폭력'은 훨씬 더 직접적이다. 민원 처리 불만으로 공무원 얼굴을 때리거나 음주상태로 방문해 폭행하기도 하며, 민원인에게 접대한 차를 담당자에게 뿌리는 경우도 있었다.

김포시 공무원 사례처럼 이른바 '좌표찍기'도 있었다. 논란이 된 '정용성 공원' 조성의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여기에 5·18민주화운동 보상 탈락에 대한 항의를 비롯해 반려동물 사육농장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사례도 줄을 이었다.

공무원 노조는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이민원이 지난 2018년 2135건에서 2021년 1만7345건으로 급증했으나, 2022년 관련 대책을 강화한 이후 1만117건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했다. ▶ 2면에 계속 노병하기자



오색조명 '남구 푸른길 브릿지' 광주 남구 푸른길 개통식을 나흘 앞둔 25일 백운광장 일대에 설치된 푸른길 브릿지가 오색 조명과 함께 환하게 빛나고 있다. 브릿지는 진월동과 남광주역 방향의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백운광장 일대를 문화와 자연 등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나건호기자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예타 통과 여부 촉각

기재부 예타조사 막바지 진행
尹, 부산대병원 7천억 약속 주목
"지역 균형발전 지원 이뤄져야"

전남대학교병원의 새 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개혁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해소"라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인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전남대병원 역시 새병원 예타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총 4차례 질의 과정을 거치며 사업계획서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당초 전남대병원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 △1조21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후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맡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와 조사과정에서 수정 제출된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1070병상 △24만㎡(7만2600평) △1조1438억원으로 변경됐다. 병상 수를 줄이는 대신 임상실습·수련교육 등 교육시설과 기초 및 중개연구·바이오헬스산업 등 연구시설 등이 대폭 늘었다.

현재 전남대병원의 1동은 46년, 2동은 무려 55년이 넘는 등 새병원이 들어설 기존 건물들의 평균 사용기간이 45년이 넘었다. 특히 1동의 경우 전국 국립대병원의 주요 진료동 중 가장 오래됐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규제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노후시설·장비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자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신 병원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주가 세 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예타 통과가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호남인입니다
(604/1000)



세 오
Se oh · 도예가

생명영양
운동진행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53rd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2024.5.25.-5.28.

JEONNAM 2024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THE 18th KOREAN YOUTH PARA GAMES

2024.5.14.~5.17.